

'2019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 MBC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19.10.29	대전MBC 대회의실	7	6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 김선재 위원장, 김종남 위원, 박상민 위원, 임정규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신원식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미디어 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3	6	5	-	1	12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0	5	-	15

다. 전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2 건	12 건	
편성	<전국이 보인다> 편성시간 이동	현재는 불가하나, 근본 대책은 타 프로그램에서 수용. <19.10월 조치>	'19.9월
교양	아침이 좋다 진행자에 대한 의견 개선	진행능력 향상 및 격려 <19.10월 조치>	'19.9월
교양	사회 이슈의 아이템 반영 (건강플러스)	방송 기획업무에서 의견 반영 <19.10월 조치>	'19.9월
교양	지역 정체성에 맞춘 음악 프로그램 제작, 자막 오류 (오롯이 당신)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오류 통보 및 수정 <19.10월 조치>	'19.9월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일관성과 사전 정리 (내가 그리는 세상)	방송 제작전 사전 검토 및 제작방향 설정 등으로 오류 최소화 <19.10월 조치>	'19.9월
보도	주제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시청자 참여의 세부 사항 공개 (노정렬의 시시각각)	개선된 의견에 대한 제작에서의 반영 확인 및 향후 제작시 반영 <19.10월 조치>	'19.9월
보도	기사 및 제목 작성시, '여신' 단어 사용의 적절성 여부	사전 확인된 사항으로 신중한 기사 처리 확인중 <19.10월 조치>	'19.9월
보도	지역 중요 사항에 대한 집중보도	주요 뉴스에 대한 시리즈 기사 보도 중 <19.10월 조치>	'19.9월
보도	아침뉴스중 일기예보 코너에 대한 의견	코너 운영방법에 대한 재고 및 중요도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법 제시 <19.10월 조치>	'19.9월

<p>보고</p>	<p>지자체장 교체 이후 중복되는 사안에 대한 보도시, 다양한 각도에서의 고려 필요</p>	<p>이슈가 단순 주장으로 흐르지않도록 주요 내용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도 <19.10월 조치></p>	<p>'19.9월</p>
<p>보고</p>	<p>추석관련 뉴스에서의 상호대화 및 정당 방송시의 중복내용 보도</p>	<p>기술 사정으로 상호 대화 불가능에 대한 답변, 중복 내용에 대한 세심한 편집 지시 <19.10월 조치></p>	<p>'19.9월</p>
<p>보고</p>	<p>인권위 진정 아나운서 2명에 다양한 의견 제시</p>	<p>이 사안에 대한 진행사항과 회사측 의견 제시 <19.10월 조치></p>	<p>'19.9월</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성명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대전 MBC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 운영실적 및 회의록 전문공개	인터넷

나. 시청자위원 명단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김선재	배재대학교 총장	한국컨텐츠학회	문화단체	19.05.01 ~ 20.04.30
부위원장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종남	대전YMCA 사무총장	대전YMCA	소비자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9.05.01 ~ 20.04.30
위원	김병구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9.05.01 ~ 20.04.30
위원	박상민	정보철강(주) 부사장	미래경영인모임	경제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서한나	잡지 Boshu 편집장	청년 고리	문화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이규홍	안정성평가연구원 본부장	한국독성학회	과학기술단체	19.05.01 ~ 20.04.30
위원	임정규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	19.05.01 ~ 20.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1. 편성 : 가요베스트 시간대 이동</p> <p>가요베스트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가요베스트의 경우 오후 6시 경에 방송되는데, 시간대가 6대가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대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정규 위원)</p>	<p>가요베스트는 지역MBC 12개사가 공동제작 중인 프로그램으로 대전은 현재 수요일 저녁 6시 25분 방송되고 있습니다. 반면 9개사가 일요일 낮 시간대 편성 중에 있어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에 맞게 공동편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p>		○	
편성	<p>2. 편성 : 심층보도, 시사 프로그램 신설</p> <p>보도 부문에서 세종 KTX 유치에 대한 뉴스나,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 등의 지역 현안은 노정렬의 시사각각 외에도 연계하여 심층 보도할 수있는 프로그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임정규 위원)</p> <p>현재 대전MBC는 작년 개편이후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시사관련 프로그램은 시사각각 하나 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관심이 많았던 시사플러스 폐지 이후 시사 관련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연이어 지역의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시사각각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는 방송에서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깁니다.</p> <p>최근 MBC 전체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탐사 보도에 대한 호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본사의 이러한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양홍모 위원)</p>	<p>우선 지적에 공감합니다. 시사플러스의 폐지 역시 단순한 선택이 아닌 심각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편성 제작 인력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부문 (교양,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이 극단적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아쉽지만 현재 인력 및 제작 규모에서 새로운 시사프로그램의 신설 보다는 기존 시사프로그램의 내실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p>		○	
편성	<p>3. 편성 : 과학 관련 프로그램 신설</p> <p>고양시 행신도서관에서는 10월의 하늘이라는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는데, 매년 10월 오늘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p>	<p>늘 고민해오던 주제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에 위치한 지역방송사로서 과학은 항구적인 아이템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하지</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 론
	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재미있고 쉬운 과학 이야기를 행사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과학자가 많은 도시인데, 이와 유사한 기획을 통해 과학문화 소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면 어떨까 ?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규홍 위원)	만 광고 수익의 급격한 감소와 인력 축소 등의 상황에서 공격적인 프로그램 신설 및 제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양	<p>4. 교양 : 내가 그리는 세상</p> <p>내가 그리는 세상은 대학생 들이 주가 되어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주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은 노잼도시라는 주제의 중복은 사전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양선희 위원)</p> <p>저도 내가 그리는 세상을 즐겨 시청하는데, 대학생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참신하기도 하고,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 수용할만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주제가 근로계약서, 3일 동안 전자기기 없이 살아보기 등 방향이 없는 느낌으로 청량제 같은 신선함과 동시에 어수선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주제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p>	프로그램의 특성 상 사전에 저희 제작진이 과도하게 개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지적이 있고 그 타당성에도 공감하는바 향후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참여 학생들과 소통해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양	<p>5. 교양 : 오롯이 당신</p> <p>오롯이 당신은 본격 음악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웃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생각되는데, 가수를 전면내세우고 일반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10월 1일, 학생 1명의 학교 이야기인데, 프로그램의 소재목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주제와 타이틀과도 조금은 어긋나 있어 보입니다. 좋은 제작물의 어울리는 타이틀과도 느낌과 주제를 공유하는 소재목을 기대합니다.</p> <p>오롯이 당신 하면, 한사람의 주인공을 생각하게 되는데, 10월 8일 방송에서는 녹도 보</p>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녹도’ 편의 경우, 해상에 태풍경보가 예보된 상황이라 제작진이 긴급하게 철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추가로 계획된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내 부적으로도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밀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건소장에 이어 주민들이 연이어 등장해서, 프로그램 구성에서 조금 벗어난 모습을 보여 의아했고, 진행자가 어느 부분에서는 사라졌다 등장해서, 일정한 포맷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행자가 없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양선희 위원)</p> <p>저는 먼저 오롯이 당신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수가 나와서 공연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알고 시청했는데, 가수 오지은씨가 출연하여, 젊은 층에서 반기는 가수를 출연시켜, 출연한 가족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지은씨와 같이 출연자들의 스토리에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수가 자주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행자의 의상도 처음에는 포멀한 의상에서 회를 진행할수록 캐주얼한 의상으로 변모해, 보기에 좋았습니다. (서한나 위원)</p>	<p>물론, 모든 상황을 통제해 가면서 제작을 해야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p>			
교양	<p>6. 교양 : 생방송 아침이 좋다</p>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홍성의 오서산 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참신했고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이야기를 담아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전의 경우, 노잼의 도시라고 하지만, 대전도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방송이 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만의 상징이 무엇인지 또 그와 관련된 이벤트는 어떻게 만들지 방송이 선도했으면 합니다. (김선재 위원장)</p>	<p>가능한 수준에서 지역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아이টে을 기획, 방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p>	○		
교양	<p>7. 교양 : 테마기행 길</p> <p>테마기행 길 진천 편도 인구감소를 벗어나고 있는 진천에 대한 이야기가 유익했지만, 마지막 클로징 부분의 최주봉 진행자의 멘트에서 농업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진천</p>	<p>의견에 동의합니다.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부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이라고 언급했는데, 농업과 관련된 진천의 모습만 보여주다가, 갑자기 첨단산업을 언급하여 무언가 좀 오류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막걸리를 마시고, 농기계 다루는 모습을 방송해서 이러한 점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교양	<p>8. 교양 : 건강플러스</p> <p>건강플러스를 자주 보는데, 음식, 효능, 조리법,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잘 짜여져 있어 흥미롭습니다. 지난번과 유사한 이야기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근감 있게 전달되는 방법을 보다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규홍 위원)</p>	<p>아무래도 의사들이 나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프로그램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듯합니다. 최대한 쉬운 용어와 사례를 통해 이해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작진이 상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시청층은 주말 오전, 중년 이상의 시청자들입니다. 물론, 전체 연령대를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주 시청층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바랍니다.</p>	○		
보도	<p>9. 보도 : 노정렬의 시시각각</p> <p>현재 유일한 시사 프로그램일고 할 수 있는 시시각각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방송된 부동산 관련 부분은 케이블 방송 수준의 이야기만을 담았습니다. 분양, 재개발, 주택시장 상황 등을 소개했는데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정보만 나열하여, 서민을 위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펴는 정부의 시책과 반대로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재와 주제는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홍모 위원)</p>	<p>올해 대전지역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컸고 향후 투기지역으로의 지정 등의 이슈가 있어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도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나 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한 부분도 다룰 예정입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10. 보도 : 보도특집 다큐멘터리</p> <p>창사 55주년으로 방송된 보도특집 다큐멘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에 걸쳐 방송된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세종시에 대한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대전 인근의 자치와 관련된 이러한 활동들을 보다 많이 전달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유익한 정보를 보다 많이 얻었으면 합니다. (이규홍 위원)</p> <p>창사 특집 시민이 가꾸는 세종자치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2부작으로 구성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반가웠습니다. 다만 다만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분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모든 것을 다루다 보니, 도시 전체의 너무 많은 부분을 열거하여, 이를 이해하기에 어렵고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많아 좀 아쉬웠다.</p> <p>프로그램 에서 인터뷰에서는 자막이 있어 전달이 잘 되었는데, 나레이션시에는 상세한 자막이 없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김선재 위원장)</p>	<p>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방대한 주제이다 보니 함축적으로 다루려 했지만 2편에서 다루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향후 보다 핵심적인 주제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p>	○			
<p>11. 보도 : 주말뉴스</p> <p>최근 주말 뉴스를 보면, 개인적으로 공중과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력 면에서 부족하겠지만, 행사보도 위주의 주말 뉴스는 전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나 분량관계로 주중에 쉽게 내보내지 못하는 심층보도나 탐사 보도 등을 주말뉴스에 배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양홍모 위원)</p> <p>주말 뉴스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첨언합니다. 주말에 인력이 부족해서, 주말스케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인력과 제작 등을 보다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뉴스 아이템</p>	<p>주말 뉴스에 대한 분량 조절을 포함한 뉴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p> <p>10.5~11.3 토요일과 일요일 뉴스데스크에서 8회 중 4회는 주말 스케치(행사 등)를 리포트 형식으로 보도했고 4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와 카이스트 실험실 유독가스 유출사고, 서해안 중국어선 해경 도끼 공격,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목원대 캠퍼스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연성화라는 물론 있지만,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축제나 명승지</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가운데 충남의 독립 지도자 이동녕에 대한 이야기와 국회 분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틀 연속으로 방송되는 것은 중복이라는 생각입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스케치 등도 나름 뉴스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말에 심층보도 등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오 이동녕 선생을 다룬 리포트는 중국 현지 취재 등을 고려해 두 꼭지를 배치한 것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지역분권 면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보도	<p>12. 보도 : 뉴스 자막 오류</p> <p>보도 가운데 아쉬웠던 부분은 국회 세종 분원에 대한 뉴스 인터뷰에서 배재대 최호택 교수의 자막이 충남대로 방송된 점은 오류라고 생각되는데요, 최호택 교수의 활동이 많은 만큼 많은 분들이 이를 지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선희 위원)</p>	자막 특히 인터뷰이나 장소, 시제 등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더 주의하겠습니다.	○		
보도	<p>13. 보도 : 학교폭력 보도</p> <p>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도 이번 달에 방송되었는데요,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은 뉴스 외에도 캠페인이나 연속보도 등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연속기사로 편성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기사를 작성하는 시각이 서울에서 방송되는 뉴스의 제작방향과는 다른, 지역의 색깔이 있는 시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선희 위원)</p> <p>학교폭력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에는 찬성하고, 노정렬 의 시시각각 등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기사는 조금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은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한 시기이기에 ‘숨방망이 처벌’이</p>	학교 폭력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자 보도이기 때문에 방송심의 부분을 비롯해 다각도로 주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연속 뉴스나 캠페인 등 어떤 형식으로라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객관적이며 교육적으로 접근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라는 단어가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의 건물 모습이 옮기기 이전의 옛 건물 영상을 사용하여 아쉬웠습니다. 이전한 교육지원청의 모습을 방송에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보도	<p>14. 보도 : 과학관련 보도</p> <p>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도 보도되어 잘 보았는데요, 과학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대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과학관련 뉴스 가운데, 대덕특구 간담회, A형 간염, 태풍 관련 뉴스 등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A형 간염관련 뉴스를 통해 상당히 이 질병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한 각별한 강조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태풍 관련한 지질 자원연구소의 연구를 소개한 800년만의 최다 태풍주기 뉴스는 대전지역에 있는 강점을 가진 연구소가 많이 있는데, 이를 잘 이용한 뉴스여서 반가웠습니다. (이규홍 위원)</p>	<p>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에 특화된 뉴스 중 하나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 관련 뉴스입니다. 신기술 개발을 비롯해 연구 개발의 성과가 실험실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화에 적용되는 부분을 보도하기 위해 여러 기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유행했던 A형 간염이나 가을 태풍의 경우 개편한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별도의 섹션과 타임라인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서 사안의 맥락과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p>	○		
기타	<p>15. 기타 : 프리랜서 아나운서 문제</p> <p>프리랜서 아나운서 문제로 지역에서 대전MBC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의견을 듣습니다. 얼마 전 대전MBC 시청자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대전MBC의 답변도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중 대전MBC의 입장문 말미에 당사자,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타 언론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언론사에게 정리하면 될 것인데, 시청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 입장문의 내용은 오해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p>	<p>방송과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p> <p>시청자게시판에 보다 자세한 답변을 게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의 의견제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냐 라는 의견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회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표현상의 문제까지 등장해서 회사에서는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는 어떠한 팩트에 대한 일방적 확대 재생산의 문제와도 유사하게 느껴집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다.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게시판에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불만처리 부분도 처리 여부만 있지 직접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 게시글에 답 글을 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와의 소통은 시청자위원회 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했으면 합니다. (양홍모 위원)</p> <p>시청자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이나 문구에 보다 신중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서한나 위원)</p> <p>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성의 가치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여성 인격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아나운서 문제에서 여성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외에는 문제 제기할 방법과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서도 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의식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함께 가는 사회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규 위원)</p> <p>여성 아나운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정규 위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권부남 부위원장)</p>	<p>기업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 회사는 종업원 10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MBC에 논의되는 사항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문제제기되고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p> <p>이 부분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성차별을 통한 여성에 대한 차별 입사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p> <p>지난해, 회사는 7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 인원의 1/10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저희 회사의 인력 채용구조는 완전히 블라인드 되어 각 분야별로 외부간섭 없이 진행되는, 사장의 입김도 먹히지 않는 채용구조입니다. 채용된 신입사원 7명중 3명의 여성이 채용되었고,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지 못했던 기술 분야 신입사원으로 여성이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문제제기를 했던 해당 아나운서는 그 응모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p> <p>문제제기 이후 보복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p> <p>두 명에 대한 프로그램 변화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변화입니다. 방송사는 정기, 혹은 수시 개편을 단행하고, 제작팀 및 진행자에 대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두 명도 다른 진행자와 제작팀과</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같이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프로그램 변동 속에서 업무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된 이후 제작팀과 출연자와의 소통과 신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p> <p>그리고, 젊은 여성에 대한 방송의 성적 상품화를 위한 희생양이라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젊은 여성 출연자 외에도, 남녀 모두 다양한 연령대의 방송 진행자들이 존재하고, 방송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방송 진행자보다 나이가 있는 중년 이상의 진행자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p>			